

광주경제계, 光銀 지역환원 대책 '미지근'

경남은 결의대회 열고 "시·도급고 빼겠다" 배수진 대조

예금보험공사가 15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공고를 내놓은 가운데 광주와 경남지역 경제계의 반응 및 향후 대책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지만 반발 강도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공사가 보유한 광주·경남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56.97%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량 판다고 공고했다. 2개 은행 매각 주관사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 모건이며 오는 9월23일까지 예비입찰을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경제계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광주상업가 중심이 된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출자자협의회 산하의 TF팀은 일단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경남지역처럼 장외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성명발표와 상경 방문활동 등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찰 전까지 인수후보군에 들기 위해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 전담 자문사를 선정하는 한편, 예비입찰 마감일까지 지역 우선협상권 요구를 꾸준히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긴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토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남지역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정지권 및 광주은행 노조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 경제계 인사는 "경남은 지역환원이 안 되면 시·도 급고를 다 빼버리겠다는 식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지역환원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광주 광산구 을) 국회의원은 이날 정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을 통해 공개입찰에 참여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남지역은 격양된 모습이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입찰서류 접수 때까지 지역환원을 위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부산·대구은행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앞서 지자체장들이 공식적으로 밝혔듯 도급고·시급고를 빼고 지역 기업인들도 거래종단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부산과의 신공항 문제 등과 관련해 절대 협조

를 하지 않은 등 최악의 영남지역 갈등 상황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타지역 은행들이 인수전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경남은행 노조도 경남·울산 지역민과 함께 항도은행을 지켜내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과 지역 순회 결의대회를 계속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부산·대구은행의 인수전 참여를 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13일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와 경남은행 노조는 창원에서 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 은행 임직원과 가족 등 1만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은행 지역환원 촉구 시·도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를 하지 않은 등 최악의 영남지역 갈등 상황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타지역 은행들이 인수전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경남은행 노조도 경남·울산 지역민과 함께 항도은행을 지켜내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과 지역 순회 결의대회를 계속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부산·대구은행의 인수전 참여를 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13일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와 경남은행 노조는 창원에서 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 은행 임직원과 가족 등 1만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은행 지역환원 촉구 시·도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열대과일 '애플망고'로 더위 날린다 15일 광주신세계 이마트 1층에서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날려 버리게 해줄 열대과일 '애플망고'가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애플망고의 가격은 5980원(1개)이며 1팩에 1만2800원(3개입)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제공>

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 20km/ℓ 로 상향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대상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ℓ 당 20km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km/ℓ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km/ℓ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다.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는 지난 3월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한 연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은 2025년부터 갤런당 56.2마일(23.9km/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0년경 20.3km/ℓ 이상의 연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연비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은 2020년부터 26.5km/ℓ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비 기준 상향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연비가 좋은 소형·경차보다 중대형 승용차들, 수동 변속기보다는 자동변속기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 행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금융교실 개최 NH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태순)는 지난 15일 목포 덕인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 주제로 금융교실을 개최했다. <전남농협 제공>

스포티지R·뉴 카렌스 모바일앱 '레드닷 디자인상' 본상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과 올 뉴 카렌스의 모바일앱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모바일 앱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5일 '2013 레드닷 디자인상'(red dot Design Award)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가운데 그룹이 3개 부문에서, 기아차가 1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4개 부문 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한 기아차 스포티지R과 카렌스의 아이폰·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은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선보였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체험 위주의 구성을 바탕으로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외장 컬러를 자유



아이패드용 스포티지R·올 뉴카렌스 모바일앱.

롭게 변경해 보거나 차량의 실내 공간과 각종 편의사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실제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3D 입체화면 구현으로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인제개 발원 마복캠퍼스 안에 위치한 '비전홀(Vision Hall)'이 이벤트 디자인 부문 본상을, 비전홀 대형 스크

린에서 상영되는 영상작품 '나·우리는 누구인가?'(Who am we?)와 '모비우스 루프'(Mobius Loop)가 TV·영상·애니메이션 부문과 기업 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각각 수상했다.

레드닷 디자인상은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이다. /임동률기자 exian@

/연합뉴스

한전, 하반기 420명 뽑는다

여성·지방인재 우대

한국전력은 올 하반기에 42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상반기에 정규직 611명(고졸 235명 포함), 청년인턴 1103명 등 총 1714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에 공채 신입사원 323명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로스쿨 변호사, 기타 경력직 등을 뽑을 계획이다.

한전은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심사 선발 인원을 확대(10~20배수→50배수)하고, 응시지역을 서울 단일지구에서 전국 5개 권역으로 늘렸다.

또 여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비율이 28.2%로 현재 직원 중 여성 비율(15.5%)을 크게 웃돌았다.

내년 본사 이직을 앞두고 이전지역(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대해 서류전형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서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한전 채용홈페이지(recruit.kepco.co.kr)를 통해 받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875.16 (+5.18)	531.67 (-0.80)	2.89% (+0.03)	1122.00원 (-2.50)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똥코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 비염의 원인으로 인한 장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지막/인두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 농도로 자극이 없고 축적된 점액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4인용 하기의 알약비액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비염 건조 증상 완화
 용법·용량/성인: 용기에 따라 1일 4~6회, 2회 분무하심.
 ※연령, 증상 등에 따라 적당히 증량하십시오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똥코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트인 비액

- 배편호기/코감기로 인한 장막 건조와 염증을 완화 신속으로 자극을 완화
- 중성염소/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을 해소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4인용 하기의 알약비액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감기, 고초열, 부비강염, 삼기도 알레르기 등에 의한 비염의 완화
 용법·용량/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용기에 따라 1일 4~6회, 2회 분무하심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의뢰하심.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